

# 광주 예술 공로 기리고 다형 김현승 문학정신 잇다

제3회 문화예술특별상·제4회 김현승 시문학제 개최

문화예술특별상 19명 시상…임원식 회장 시문학상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 온 예술인들의 공로를 기리고, 다형 김현승 시인의 문학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예총 광주특별시연합회와 다형기념사업회는 최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 2층 공연장에서 제3회 문화예술특별상과 제4회 김현승 시문학제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랜 세월 각자의 예술 분야에서 창작과 실천을 이어오며 지역 문화예술의 토대를 다져 온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광주가 낳은 시인 김현승의 문학적 유산과 예술혼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문화예술특별상과 김현승 시문학상 시상, 전국시낭송대회 수상자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제3회를 맞은 문화예술특별상은 올해 시문학상을 두 차례 시행한 데 이어, 올해 라인문화재단 측과의 협의를 통

해 상의 취지와 의미를 확대한 상이다. 예술적 성취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온 예술인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

수상자는 예술적 성과와 전문성, 지속적인 활동 실적,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창작 활동과 예술 단체 운영, 후진 양성, 지역 문화사업 등에 힘써 온 1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문화예술특별상 수상자는 건축부문 강남구·김기준, 국악부문 함태선·이효성, 무용부문 이영애·오윤환, 문인부문 노창수, 미술부문 박광구·정용규, 사진부문 강춘자·윤만문, 연극부문 박규상, 연예부문 유방희·최규환, 영화부문 차두옥, 음악부문 윤영문·이경은, 광주예총 부문



(사)한국예총 광주특별시연합회와 다형기념사업회는 최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 2층 공연장에서 제3회 문화예술특별상과 제4회 김현승 시문학제를 개최했다.

백수인·안선순 등이다.

이들은 꾸준한 예술 활동으로 창작의 지평을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장해 왔다.

이번 특별상은 개인의 예술적 성취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예술을 묵묵히 지켜 온 예술인들의 공로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4회 김현승 시문학제에서는 김현승

시문학상과 시낭송상 시상도 진행됐다. 김현승 시문학상 수상자는 임원식 (새한) 국예총 광주특별시연합회 회장으로, 시문학상 상금은 3000만원이다.

임 회장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학과 문학 분야에서 학문적 기반을 쌓았으며, 시·수필·소설·평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문학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저서로는 시집 ‘시 날개를 펴다’ 등 21권, 칼럼집 ‘초원에서 사색하

기’ 등 4권, 연구서 ‘신촌문예의 문단사적 연구’ 등 4권이 있다.

문학 활동과 더불어 전남일보 사장, 광주시인협회장, 광주문인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예총 광주특별시연합회장으로서 지역 예술계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힘쓰고 있다.

함께 열린 다형 김현승 시인의 시 세계를 재조명하고, 시인이 간직했던 예술혼을 기리는 김현승 전국시낭송대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임원식 회장은 “문화예술은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힘”이라며 “이번 행사가 오랜 시간 지역 예술계를 지켜 온 예술인들의 공로를 기리고, 김현승 시인의 문학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한양임 북구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주민 복리 증진·현안 해결 등 다방면 의정활동 공로 인정

한양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 회장 취임식 및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현장중심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 의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한양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 회장 취임식 및 제27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특히 돌봄·복지 강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건강주치 의제 운영 지원·청년 예비군 이동권 보장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앞장선 점을 호평받았다.

한양임 의장은 “지방시대 실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보내주신 원인에 보답하기 위해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김원배 신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취임

“여수·광양항 경쟁력 강화·안전한 해양수산 환경 조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김원배 신임 청장(사진)이 지난 9일자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김 청장은 “여수·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활력 있는 해양수산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및 해양수산 관계자들과 적극적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전 출신인 김 청장은 서울대학교 영



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대학교에서 해양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제46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기획재정부담당관, 해양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 동참

정정훈 캠프 사장 지목으로 참여…포용금융 가치 확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 확산에 나섰다.

소진공은 인태연 이사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정훈 사장의 지목을 받아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람 살리는 금융’은 불법 금융 피해로부터 국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포용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서민 금융진흥원이 지난 7월 시작한 공익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을 위해 정책자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금융 부담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되새기고, 현장 중심의 포용금융 지원 의지를 다졌다는 게 소진공의 설명이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에게 금융은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며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을 덜



고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 농협광주본부·서구시설관리공단, 딸기농가 환경정비 지원

농협광주본부와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딸기 재배 농가를 찾아 하우스 환경정비에 힘을 보탰다.

농협광주본부는 14일 광산구 북룡동 딸기 재배 농가에서 범농협 농촌봉사단과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과 같이(價値) 행 북농촌봉사단’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단은 낚



농협광주본부는 14일 광산구 북룡동 딸기 재배 농가에서 범농협 농촌봉사단과 광주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은 차광막과 비닐 등 폐자재를 수거해 분리 배출하고, 작업 공간과 작물 생육 통로에 쌓인 흙을 제거하는 등 하우스 환경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광주지방 국세청 조사1국장 배상복

###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속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운세 (음력 9월 5일)

쥐

48년생 건강 문제는 자만심 버려라  
60년생 갈 곳 많고 쓸데 없는 지출이 많다  
72년생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려 늦어진다  
84년생 입에 맞는 떡이다 무엇이든 추진하라  
96년생 꽃이 피는 봄날의 기분이다

토끼

51년생 분수에 맞지 않으니 욕심 버리지 마라  
63년생 문서 때문에 망신 당할 일 생긴다  
75년생 지금은 인간관계와 식견이 필요할 때  
87년생 마음먹기 달랐으니 성실히 노력하라  
99년생 선배의 배신으로 속이 상한다

말

54년생 금전 융통 무리하면 상황이 악화된다  
66년생 후배들을 과신한다면 잃는 바가 많다  
78년생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반응 뜨겁다  
90년생 조금만 더 거당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

돼지

57년생 친구를 믿어도 정보를 흘려서 얻는다  
69년생 운수가 답답하니 잃지 않도록 해라  
81년생 시험이나 입학에 임하면 승리할 것  
93년생 미운 후배가 있더라도 표시하지 마라

소

49년생 자녀들로 인해 난감한 임장에 처한다  
61년생 집안에서 한 발양보하는 자세로 임하라  
73년생 입신양명 관청일 순탄하다  
85년생 넓은 마음으로 대하니 인덕이 많다  
97년생 이성 때문에 기분이 고조된다

말

52년생 재물로 인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64년생 부동산 거래를 지속하면 성사될 것  
76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진다  
88년생 직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라

양

55년생 재물은 얻을 수 없고 집이 움직일 것  
67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와는 동떨어진다  
79년생 넘치는 것 보다는 부족함이 좋다  
91년생 선배와 금전관계로 적이 된다

개

58년생 지인이 찾아와 투기를 권하면 사양하라  
70년생 음책달걀 못알 차지에 놓여도 해결된다  
82년생 재물로 다들 일이 있더라도 참는 게 득  
94년생 삶은 선배와 충돌하지 말고 피하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호랑이

50년생 자녀 키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62년생 부동산 거래는 의미가 없다  
74년생 아랫사람에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다  
86년생 지인과 관계에 부드러움이 절실하다  
98년생 아이디어 떠올라 일 진행이 빠르다

범

53년생 추진하고 있는 일 표면으로 드러난다  
65년생 폭 넓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89년생 지인요로 인해 손해 따르니 조심하라

원숭이

56년생 귀인을 만나려 하지만 쉽지 않다  
68년생 두루 살펴보는 것이 용이하리라  
80년생 협력자가 생겨 일에 진행 빠르다  
92년생 연인요로 인해 재산 바림이 돌아온다

돼지

59년생 주변과 불화로 애로가 많은 것  
71년생 기쁨이 가득한 운수 좋은 날이다  
83년생 투자 요구에도 별 이익이 없다  
95년생 헛되지 수고했다고 탄식하지마라